

■ 7.23.(토)—7.24.(일) Make Marxism Critical Again

〈쇼크의 미학: 금융화 이후의 시각예술〉 서동진

자본주의가 금융화되었다는 것은 이런 것이지 않을까. 더 이상 투자와 생산을 통해 이윤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지를 자신의 것이라 선언하고 그것에서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여 지대(rent)를 쥐어짜내는 것. 막대한 잉여 그러니까 시쳇말로 유보 이윤을 발판 삼아 구조조정으로 활짝 열린 자본시장을 통해 글로벌 남반구의 기업들에 투자하고 값싼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 그리고 이자와 배당금을 빨아먹는 것. 또 이에 더해 신용카드와 대출을 듬뿍 나눠주고 노동자들의 미래 소득을 청구할 권리로 미래의 시간을 현재에 탕진하는 것, 그러므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토론하고 투쟁하기보다는 이미 팔아넘긴 미래를 상환하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하는 영원한 현재의 카르마에 갇혀버리는 것. 그렇다면 이는 시각예술과 무슨 상관인가. 우리는 동시대 미술의 주요한 징후들을 금융화 이후의 자본주의에 비추어 읽으며, 예술의 정치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생산하고자 할 것이다.

서동진은 문화평론가이며, 현재 계원대학교 융합예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시각예술과 자본주의의 문화 및 경제에 대한 비판적 연구와 글쓰기를 하고 있다. 저서로는 『자유의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 『동시대 이후: 시간-경험-이미지』 등이 있다.

〈절대자본주의와 미술: 심화된 매개 속 자유의 공간은?〉 정강산

예술—좁게는 미술은 차이를 만든다. 미적 형상화의 과정을 거쳐 각 작업은 세계의 논리로 환원될 수 없는 소우주로서 성립한다. 이는 팝아트라는 예외적인 국면을 제외하면 여태껏 의심받아 온 적 없는 미술의 공리계를 구성해왔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일순간 동일하게 만드는 것은 시장이다. 금융화 이후, 주식과 더불어 고이윤의 투자처로서 각광받게 된 미술장의 조건 속에서 그 구별되는 계기는 존재론적으로 사라진다. 이번 강의는 1990—2000년대에 거쳐 심화되고 확장된 갤러리, 경매회사, 아트페어, 아트펀드 등의 제도와 신생공간과 예술 노동론, 조각투자의 역사를 재고하며 상이한 현상들을 금융화의 각 계기들로서 셈한다. 이로써 총체적으로 강화된 자본에 의한 매개의 국면에서 가능한 파열을 모색해본다.

정강산은 독립연구자로, 예술, 정치, 사회, 경제 등의 학제를 자본주의 생산양식과의 관계 하에서 맥락화하는 연구에 관심을 두고 있다. 『아트인컬처』, 『퍼블릭아트』, 『미술세계』, 『진보평론』, 『웁.신』 등에 글을 기고했다. 정치경제학연구소 프닉스 연구위원, 맑스코뮤날레 집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1세기에 가능한 유물론적 예술론을 다듬어 보려한다.

■ 7.30.(토)—7.31.(일) 미팅룸

〈온라인 미술시장 연대기: 디지털 기술과 NFT의 가능성, 한계, 전망〉 이경민

미술시장이 온라인을 적극 활용하고 디지털아트가 강세를 띠기 시작한 배경에 팬데믹과 NFT의 영향이 있었음을 살펴본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미술시장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이를 가능하게 했던 기술의 변화와 온라인 미술시장의 연대기를 정리한다. 대면 경험을 중시했던 미술시장이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데 일조한 다양한 기술, 온라인과 NFT 미술시장의 가능성과 한계, 전망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이경민은 현재 비영리 연구단체 미팅룸의 미술시장 연구팀 디렉터로, 국내외 미술시장 주체의 움직임에 주목해 다양한 매체와 기관에 글을 기고하고 강의를 한다. 갤러리현대 전시기획팀에 근무했으며, 『월간미술』 기자로 활동했다. K-ARTMARKET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했으며, 2021 KAMA 컨퍼런스의 〈미술시장과 온라인: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를 공동기획했다. 공저로는 『세어 미: 공유하는 미술, 반응하는 플랫폼』과 『세어 미: 재난 이후의 미술, 미래를 상상하기』가 있다.

〈디지털 큐레이팅과 게임사회〉 홍이지

우리는 하루 대부분의 시간 동안 스크린을 마주하며 산다.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일상적 침투는 우리의 삶을 급속하게 변화시켰고 그동안 우리에게 익숙했던 시공간의 경계와 의미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다. 이러한 매체의 변화를 겪으며 시각예술과 문화 흐름 역시도 대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새로운 기술과 인지 변화에 따라 시각 예술 현장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최근 가장 중요한 화두인 디지털 큐레이팅과 게임을 통해 알아보려고 한다.

홍이지는 서울에서 활동하는 전시기획자로,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큐레이터로 재직 중이다. 비영리 연구단체 미팅룸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디지털 매체와 창작 환경의 변화에 따른 인지 조건과 문화 현상을 연구한다. 《올해의 작가상》(국립현대미술관, 2021), 《동물의 숲 온라인 전시: 모두의 박물관》(2020) 등을 기획했다. 공저로는 『세어 미: 공유하는 미술, 반응하는 플랫폼』(2019), 『세어 미: 재난 이후의 미술, 미래를 상상하기』(2021)가 있다.

■ 8.6.(토)—8.7.(일) 디지털 인문학 연구 그룹

〈디지털 인문학 방법론: 텍스트, 이미지, 네트워크〉 이은수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인문학 연구의 혁신을 도모하는 디지털 인문학은 텍스트, 이미지, 네트워크, 공간 분석을 중심으로 인문학 연구의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디지털 인문학의 여러 흥미롭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인문학으로서 디지털 인문학의 가능성과 한계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를 짚어보고자 한다.

이은수는 현재 카이스트 인문사회과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수리과학부를 졸업하고 동대학 인문대학 서양고전학 협동과정 석사를 졸업했다.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고전학과에서 서양고전학, 과학사, 디지털 인문학 관련 연구를 수행하며 박사학위를 받았다.

〈새로운 미술사 방법론: 머신러닝과 메타버스, 가상미술관 연구〉 오경택

미술사 분야에서 디지털 인문학은 미술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가상미술관, 이미지 기계학습 등 새로운 인문학 연구 아젠다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번 강의는 UC 버클리 대학의 브뤼헬 가족(Brueghel Family) 디지털 인문학 프로젝트를 구체적인 사례로 삼아, 미술사 분야 디지털 인문학 연구를 심도 깊게 살펴본다. 아울러 메타버스 가상공간에서의 버추얼 뮤지엄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오경택은 미국 UC 버클리대학에서 미술사를 공부했다. 현재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디지털 헤리티지 랩(Digital Heritage Lab)에서 미술사를 중심으로 디지털 인문학을 연구하고 있다. 가상공간과 버추얼 뮤지엄(Virtual Museum) 연구를 토대로 메타버스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다.

■ 8.13.(토)—8.14.(일) 대안연구공동체

〈가속주의와 육후이 기술철학의 쟁점들〉 이승현

동시대 자본주의와 기술, 그리고 기존 진보좌파에 대한 가속주의의 진단과 이들이 생각하는 미술의 역할을 육후이의 기술철학과 대비하여 살펴본다.

이승현은 홍익대학교 미술사학과 대학원에서 외래교수로, 미술사와 동시대 미술담론을 강의하고 있다. 2020년 덕수궁에서 개최한 전시 《토끼방향 오브젝트》에서 국제 세미나를 기획하는 등 다수의 전시기획에 참여했으며, 국제미술사학회(CIHA) 등의 학회에서 논문을 발표했다. 저서로는 『아트 캐피털리즘』이 있으며, 역서로는 클리포드 더글라스의 『사회신용』과 마틴 제이의 『눈의 폼하』(공역)가 있다.

〈신실재론 예술론의 쟁점: 그레이엄 하먼과 마르쿠스 가브리엘을 중심으로〉 김남시

상관주의나 구성주의에서 벗어나 모든 존재자들의 실재함을 주장하는 새로운 실재론은 예술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 모든 객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출발점으로 삼는 객체지향철학은 객체로서의 예술작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까? 결코 인간과 무관할 수 없는 예술작품의 감상과 해석은 예술의 자율성을 어떻게 보장하는가? 이번 강의는 그레이엄 하먼과 마르쿠스 가브리엘의 예술론을 비교, 검토하면서 이 질문들을 생각해본다.

김남시는 이화여대 조형예술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학교 미학과를 졸업하고 베를린 훔볼트 대학 문학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역서로는 프리드리히 키틀러의 『축음기, 영화, 타자기』, 아비 바르부르크의 『뱀 의식』, 마르쿠스 가브리엘의 『예술의 힘』 등이 있다.

■ 8.20.(토)—8.21.(일) 아그라파 소사이어티

〈미술의 세계에서 상품이 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김진주

미술에서 상품이란 살까 말까를 고민하는 것보다 만들까 말까를 고민하는 문제에 가깝지 않나? ‘미술 작가’로서 나는 지금 만드는 것을 팔 것인지 말 것인지 생각하고 만들기 시작했을까? 기획자로서 나는 ‘어떤 미술인 것’을 ‘제작’할 때 개입되는 경제적, 자본적 문제들—이를테면 공동 생산자들간의 이익이나 노동—을 얼마나 해결하고 있을까? (예술이라는 이름과 지위로) 같은 대상이 다른 값을 가질 때, 그것은 질서의 교란일까 권력의 해체일까? (예술의 장에서) 우리가 원하고 교환하는 것은 상품일까, ‘free’일까? 그 무엇일까? 이번 강의에서는 이러한 질문을—자본주의 세계의 문제 해결법인 ‘증산’에 빗대어—예술가들의 선언, 페미니스트 예술가들의 작업, 사회 참여적 예술의 실천이나 행위, 아카이브나 연구적 태도의 예술 기획들 등 여러 장들로 ‘증폭’해 경유해본다.

김진주는 미술작가, 큐레이터, 시각예술문화 연구자, 팟캐스트 진행자 등으로 활동한다. 현재 서울시립미술관에서 학예연구사로 재직 중이다. 개인전 《지진계들》(합정지구, 2020)을 비롯해 다수의 전시에 참여했다. 아그라파 소사이어티의 일원으로 웹진 ‘세미나’를 공동기획 및 편집했으며, 세마 코랄(SeMA Coral)의 외부 기획자로 창간 편집을 맡았다.

〈믿음! 더 빨리, 더 많이: 암호화폐 커뮤니티 속 믿음의 구조에 관하여〉 이연숙

폴 라파르그는 일찍이 자본주의를 종교에 비유한 바 있다. 그는 한낱 종이 조각리에 불과한 화폐의 “마술적인 힘”을 믿는 부르주아의 삶이 “미신으로 이뤄져 있다.”고 지적했다. 자본의 이러한 마술적인 속성은 지난 몇 년간 국내 투기 시장을 뜨겁게 달구었던 종목인 코인(암호화폐)들의 생태계에서도 쉽게 발견된다. 실제 ‘믿음’은 코인 가격의 상승과 하락에 가장 중요한 변수이므로 투자자들은 ‘가즈아’, ‘존버’를 외치며 코인 가격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주술을 건다. 이들은 물론 어리석은 도박꾼이지만, 동시에 이 각각의 도박꾼들은 자본주의의 증상인 불안과 신경증을 앓는 최소 단위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런 가설이 가능하다. 어쩌면 그런 개인을 집단적 믿음 속에서 용해시켰을 코인이라는 ‘종교’란, 이들에게 기이한 안정감을 제공해주지 않았을까? 이 짧은 강의는 (비교적) 젊고, 취약하고, ‘어리석은’ 이들의 믿음의 구조와 가속주의적 ‘특이점’을 탐문하고, 함께 이야기해 볼 만한 국내 작가의 작품을 다룰 예정이다.

이연숙은 닉네임 ‘리타’로 활동하며, 대중문화와 시각예술에 대한 글을 쓰고 비교문학을 공부하고 있다. 아그라파 소사이어티의 일원으로, 웹진 ‘세미나’를 공동기획 및 편집했다. 프로젝트 OFF의 구성원이며 페미니즘 강연과 비평을 공동기획했다. 블로그 ‘All apologies’(http://blog.naver.com/hotleve)를 운영한다. 2021년 SeMA—하나 평론상을 수상했다.